

익산, 환경친화도시 구축

1312억원 들여 금마저수지 일원에 식물자연학습원, 에코캠핑장 등 조성

익산시가 환경친화도시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가족친화형 생태·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한다.

시는 올해 1312억원의 예산을 활용,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한다.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공간과 생태체험 공간을 확대 조성한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식물자연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등 시민 생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식생 구조와 자연경관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

또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을 조성해 이를 통한 시민의 정서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악취측정차량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산업단지 악취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왕궁특수지 내 현업조사 매입을 완료해 가족분노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환경오염 사고로 훼손된 장점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마을을 조성하고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남산 폐식산 불법매립 폐기물의 신속한 이적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의 복원 등 주민생활 안정화에 힘을 쓸 계획이다.

시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석탄, 여산, 춘포판문 등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송천·성당·아리랑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난취약시설의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정책을 강화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대표음식점 육성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1건의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35회 임시회를 지난달 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2021년도 첫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당초 본예산 1조 4,128억 2,7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0.1%)이 증액한 1조 4,139억 7,2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1년도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하여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간담회에서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부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

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도 간담회를 통해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 매입하기로 한 건물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인근에 기능이 겹치는 시설이 있어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안길·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한안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 7700만 원을 포함한 1,250억 8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시 사업으로 순공사비용은 81.9억 1100만 원이며 건설사별 지분율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

의 지분으로 실질적 자본금 36억 8600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9%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담도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은 대한민국 141곳과 해외에는 미국 15곳을 비롯해 33곳에 설치되어 전 세계 17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미테구 의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설치기한 연장은 물론 미테구에 계속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결의안에 포함되어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과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군산시의회가 지난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군산공설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설맞이 장보기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페

인을 추진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어깨띠를 두르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에 맞게 최소인원으로 나눠서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앞장섬과 동시에 지역경제 민심을 살렸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통시장 홈페이지,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전통시장 온라인 관로개척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재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산사회복지관, 아가페정양원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렸다.

익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지역 내 위치한 동산사회복지관, 아가페정양원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

접 방문하는 대신 쌀, 라면, 과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그늘지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익산시의회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며, 따뜻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외과대학 등 의학계열 학생들의 해부학 교육 지원을 위해 최신 가상해부실습시스템을 도입했다.

원광대, 최신 가상해부실습 시스템 도입

의학계열 학생들 교육 지원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외과대학 등 의학계열 학생들의 해부학 교육 지원을 위해 최신 가상해부실습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가상해부실습시스템은 미국에서 제작된 '가상해부 시뮬레이터'로 실물 크기의 입체적인 인체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터치로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며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어 세계 여러 곳의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의과대학이 많지 않은 가운데 원광대는 의학계열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의학계열 학과에서 가상해부실습시스템을 활용 강의가 더해지면 해당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실제 해부를 할 수 없는 간호 및 보건계열 학생들도 가상해부실습시스템을 활용 강의를 적용하여 인체구조를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3월10일까지 사실조사 실시

군산시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 산학협력 성과 발표회

군산대학교와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에서는 지난 3~4일 '지역사회 및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성과 창출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군산대학교 및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 및 군산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생생한 산학협력을 위해 진행한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 첫째 날인 3일은 광명선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진행한 산학협력 성과물 전시, 김영철 LINC+사업단장의 기업지원프로그램 소개, 2020학년도 기술개발과제 최종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4일에는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IRECC협의회 성과 공유회 및 학생 취업 박람회,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식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